

# 失音의 病因 病機에 對한 文獻的 考察

宋恪鎬 盧石善\*

## ABSTRACT

### A Literatual Study on the Dysphonia

Song Gak Ho, O.M.D.,  
Roh Seok Seon, O.M.D., Ph.D.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Taejon University, Korea.  
In the Literatual Study on the Dysphoni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causes of dysphonia are exogenous pathogenic factors,(specially cold evil)internal damage and meridian in The Yellow Emperor's Canon of Interl Medicine, since then endogenous pathogenic factors are lung-asthenia and deficiency of lung-yin etc. The main causes are disease caused by exogenous evils, general body weakness, emotional stimulation and excess of high voice rescently.
2. The pathogenesis of dysphonia originated from two factors; The first internal damages are consumption of body fluid with the formation of dryness evil resulting from the insufficiency of lung-yin and lung-collaterals damaged by heat-evil caused by deficiency of lung and kidney-yin. The second disease caused by exogenous evils is sluggishness of lung-energy caused by exogenous pathogenic factotrs.

---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學教室

3. The main relative organ are heart, lung and kidney etc.
4. The prescriptions of wind-cold symptoms are Samyoutang(三拗湯) and Hangsosan(杏蘇散), in the prescriptions of phlegm-heat symptom is Chenginyongphetang(清咽寧肺湯), in the prescriptions of depressive syndrome due to disorder of vital energy are Sogangkitang(小降氣湯) and Shihochenggantang(柴胡清肝湯加減), in the prescriptions of consumption of body fluid with the formation of dryness evil resulting from the insufficiency of lung-yin symptoms are Sanghangtang(桑杏湯) and Chenginguphetang(清咽救肺湯), in the prescriptions of deficiency of lung and kidney-yin are Baekhabgokumtang(百合固金湯) and Maekmigiwhangtang(麥味地黃湯).
5. The treatment of acupunctures are used by LI-4(合谷), H-7(湧泉), Liv-3(太衝), K-3(太谿), Sp-6(三陰交), H-5(通里), GV-15(瘡門), CV-23(廉泉), S-40(農隆), K-6(照海), L-7(列缺), S-36(足三里) etc.

## I. 緒 論

말의 機能은 사람에 있어서 社會的인 交際나 4 個人의 知的生活에서도 基本的인 重要性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言語行爲는 呼氣에 의한 空氣의 흐름과 喉頭 咽頭 口蓋 舌 脣 및 呼吸筋이 高度로 協助를 하면서 連續的으로 收縮할 때 可能해지는 複雜微妙한 動作이다<sup>1)</sup>. 言語를 言과 語로 區別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言이라 稱하고 他人의 言에 答하는 것을 語라 稱하며<sup>2-3)</sup> 이러한 言語障礙에는 構音障礙와 失語證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構音障礙란 言語를 發音하기 위한 發語器官의 異常麻痺나 痙攣, 緊張異常 등에 의해서 招來되는 것이며, 失語證은 高位의 中樞障礙에 의한 言語의 概念構成, 言語의 聽取 또는 發語의 中樞性 障礙로 因한 것이다<sup>4)</sup>.

韓醫學에서는 言語障礙를 原因과 症狀에 따라 瘖不語 痰塞不語 大驚不語 亡血不語 中風不語 舌強不語 神昏不語 口禁不語 舌麻不語 舌縱語澁 舌麻語澁 腎虛不語 氣血虛損不語 虛勞失音 卒然失音 咳嗽失音 色傷失音 神怯失音 謳歌喉風 痘瘡後失音 등으로 表現하고 있다<sup>2-3,5-13)</sup>. 특히 語聲嘶啞하고 甚하면 不能發聲하는 것을 失音이라 하여 歷代 文獻에서는 瘖 또는 暗의 範疇에서 言及하고 있다<sup>14-15)</sup>. <<黃帝內經·素問>><宣明五氣論><sup>16)</sup>에서는 “五邪所亂, 邪入於陽則狂, 邪入於陰則痺, 搏陽則爲癲疾, 搏陰則爲瘖, 陽入之陰則靜, 陰出之陽則怒, 是爲五亂.”이라 하였고 <<黃帝內經·靈樞>><憂悲無言篇><sup>17)</sup>에서는 “人卒然無音者, 寒氣客于厭, 則厭不能發, 發不能下, 至其開闔不致, 故無音.”이라 하여 感受外邪와 五臟內傷의 側面에서 接近하였고, 巢<sup>5)</sup>는 咽과 喉의 生理的인 機能과 外感中

風冷之氣가 會厭에 侵犯하여 失音이 된다고 하였다.

以後 醫學의 發達과 함께 失音에 對한 認識도 多樣해 졌는데 樓<sup>18)</sup>는 失音을 中風으로 因하여 舌本만 轉運하지 못하여 言語를 成說하지 못하는 舌瘡과 勞嗽 등으로 因하여 聲嘶되어 音聲만 發하지 못하고 舌本은 正常的으로 轉運하는 喉瘡으로 區別하여 辨證論治 하였고, 張<sup>19)</sup>은 失音을 虛實로 나누어 辨證施治 하였을 뿐만 아니라 飲食, 起居, 生活不慎으로 造成된 一時性 失音에 對해 言及하는 등 그 原因이나 分類에 있어서 여러가지 說들이 多樣하게 提起되었다.

이에 著者는 失音에 對한 文獻的 考察을 통하여 諸家의 說을 考察한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診療要鑑 <sup>2)</sup>

#### < 聲音 >

##### 1) 腎虛聲不出證

原因 : 腎氣가 虛弱하여 能히 諸氣를 收納하여 本元에 歸還시키지 못하므로, 聲音을 發하지 못한다. 大病後, 或은 吐瀉後에 津液이 涸竭되어 咽喉에 到達되지 못하여 聲音이 나오지 않는 例도 있다.

證治 : 腎氣丸, 人蔘平補湯, 金水清音湯.

##### 2) 卒然無音

原因 : 寒氣가 會厭에 侵入하면 會厭이 鈍하여 저서 開闢作用을 圓滑하게 하지 못하므로

音聲을 發하지 못하여 無音證이 된다. 飲酒當風後에 더욱 많다.

證治 : 荊蘇湯, 射干湯.

##### 3) 雜病失音

他病諸證에 併發되는 失音證을 말한다.

證治 : 咳嗽로 因한 失音에는 人蔘清肺飲, 蜈蚣丸을 쓴다. 痰塞으로 因한 失音에는 寒痰이면 小青龍湯을, 熱痰이면 芎辛散을 쓴다. 虛勞證으로 因한 失音에는 腎氣丸에 石菖蒲를 加해 쓴다. 謳歌로 因한 失音에는 響聲破笛丸을 쓰며, 咽喉痛으로 因한 失音證에는 柑桔清音湯을 쓴다. 咽喉에 生瘡紅裂하여 聲啞하면 通陰散을 쓴다. 痘瘡後의 失音에는 必用方甘桔湯에 石菖蒲 五味子를 加해 쓴다. 婦人의 産後에 失音되어 語聲이 不出하면 茯苓補心湯에 木通 石菖蒲 五味子를 加해 쓴다.

##### 4) 瘖啞證

原因 : 內經에 의하면 厥氣가 喉間에 侵入되면 瘖病이 된다고 하였다. 大概 中風病에 風痰이 壅盛하여 舌強不語하는 例가 많고, 咳嗽 痰盛 或은 飲酒過度後에 厥氣가 喉間에 侵入되어 瘖病이 되기도 한다.

證治 : 瘖啞病을 舌瘡과 喉瘡의 二證으로 區別한다. 舌瘡은 舌本만 轉運하지 못하여 言語를 成說하지 못하는 것인데, 例하면 中風患者가 音聲은 發하면서도 言語를 構成하지 못하는 것이 卽 舌瘡이니, 治法은 風痰을 除去시켜야 하므로 祛風滌痰湯을 쓴다. 喉瘡은 喉頭의 破傷으로 聲嘶되어 音聲만 發하지 못하고 舌本은 正常的으로 轉運하는 것인 바, 卽 言語는 成說되어도 發聲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例하면 勞嗽 久嗽 等證으로 聲嘶不語하는 것을 指摘한다. 治法은

聲嘶를 主治하여야 하므로 潤肺丸類를 쓴다.

5) 鍼灸法

喉痺 卒瘡證에는 豐隆을 取한다.

卒然失音된 데는 神門 湧泉을 取한다. 厥氣走  
喉로 因한 卒瘡不語證에는 照海 列缺을 取한다.  
咳嗽로 因한 失語證에는 太淵 神門 太谿 足三  
里를 取한다.

< 言語 >

言과 語를 區別하여, 자기가 말하는 것을 言  
이라 稱하고, 他人의 言에 答하는 것을 語라 稱  
한다.

1) 瘖不語證

證治 : 舌強不語 口噤不語等證은 痰이 尤盛한  
所致이므로, 祛風滌痰湯을 쓰고, 舌縱語澁 舌麻  
語澁等證은 風이 尤盛한 所致이므로, 資壽解語  
湯 解語丸을 쓰고, 神昏不語證에는 淸神解語湯  
을 쓰고, 腎虛證에는 地黃飲子를 쓰고, 氣血虛  
損不語證에는 十全大補湯에서 官桂를 去하고  
石菖蒲 遠志를 加하여 쓰고, 人蔘平補湯도 좋은  
處方이다.

2) 痰塞不語

足少陰脈이 舌本을 挾行하고, 足太陰脈이 舌  
本에 連系되고, 手少陰別脈이 舌本에 連繫되었  
으므로, 이 三脈이 虛해지면 痰涎이 侵入하여  
그 脈道를 閉塞하므로, 舌이 能히 轉運하지 못  
하여, 言語不能하는 것이니, 治法은 祛風滌痰湯  
을 쓰되, 火熱이 있으면 黃芩 黃連을 加해 쓴  
다.

3) 亡血不語

原因 : 足少陰脈이 出血하여 重虛하면 舌이  
轉運되지 못하여 難語하고, 或은 舌下의 中脈을

鍼刺할 때, 出血이 過多不止하면 亡血되어 言語  
를 못하게 된다.

治法 : 四物湯에 人蔘 白朮 陳皮 甘草 菖蒲  
遠志를 加하여 쓴다.

4) 大驚不語

原因 : 卒然히 大驚하면 心膽이 虛해지므로, 敗  
血과 頑痰이 心竅를 填塞하므로 瘖啞證이 된다.

治法 : 密陀僧散 茯神散을 쓴다.

5) 鍼灸法

瘖病不能言證에 合谷 神門 湧泉 太衝 太谿  
三陰交를 刺한다. 足太陰脈病이 舌本이 強하여  
不能言하며, 手少陰別脈을 通里라 하는데 虛하  
면 不能言하는바 通里를 補하여야 한다. 舌이  
緩慢하여 不能言하면 瘖門을 取하고, 舌下가 腫  
瘡하여 難言하면 廉泉을 取한다.

2. 東醫肺系內科學<sup>3)</sup>

< 言語의 分類 >

言語는 言과 語로 區別하여, 自己가 말하는  
것을 言이라 稱하고, 他人의 言에 答하는 것을  
語라 稱한다.

難經에 依하면, 肺는 聲音을 主管하여 入肝하  
면 爲呼하고, 入心하면 爲言하며, 入脾하면 爲  
歌하고, 入腎하면 爲呻하며, 入肺하면 爲哭한다.

1) 譫語, 狂言

譫은 難語하며 妄言하는 것으로 平生常事를  
말하며, 或은 開目而自言하며, 未見事를 말하  
기도 하며, 或은 睡中呢喃하고, 或은 呻吟이 不己  
하여 甚하면 狂言, 罵詈가 되는 것으로 모두 譫  
語에 屬하는 바 이는 胃熱이 乘心한 때문이다.

또한 合目하여 日用常見과 常行之事를 말하  
는 것은 譫語이고, 開目하여 未嘗見之事를 말하

는 것은 狂言이다.

이러한 原因은 胃熱이 乘心하거나, 風寒의 邪가 皮膚를 通하여 肺中에 侵入되어 心으로 轉入하면 讒語가 되는 것이다. 즉 讒語는 口出無論한 것으로 邪氣가 勝한 것이다.

衣被를 不斂하고 言語에 善惡하며 親疎를 不避함은 神明이 亂한 것으로 狂言이며 悲泣, 呻吟, 言語讒忘은 邪崇이다.

< 病證分類 >

1) 瘖不得語

內徑에 依하면, 邪가 陰에 入하여 搏하면 瘖이 되는데, 瘖에는 舌瘖과 喉瘖이 있다.

不得語는 한가지가 아니라 舌強不語, 神昏不語, 口噤不語, 舌縱語澁, 舌麻語澁 等證이 있으며, 治風 治痰 安神 養氣血로 各各의 治法에 따라 治療한다.

證治 : 舌強不語 口噤不語는 痰盛한 所致이므로 加減導痰湯, 滌痰湯을 쓰고, 舌縱語澁 舌麻語澁은 風盛한 所致이므로 資壽解語湯, 解語丸을 쓰며, 神昏不語에는 淸神解語湯을 쓰고, 腎虛에는 地黃飮子를 쓰며, 氣血虛損에는 十全大補湯去官桂 加石菖蒲 遠志를 쓴다.

2) 痰塞不語

足少陰脈은 舌本에 挾하고, 足太陰脈은 舌本에 連하고, 手少陰別脈은 舌本에 繫하므로, 이 三脈이 虛하면 痰涎이 乘虛하고 그 脈道가 閉塞하여 舌이 不能轉運言語한다.

3) 亡血不語

足少陰脈에 刺出血하여 重虛하면 舌이 難以言하며, 舌下中脈을 刺하여 出血不止하여 太過하면 不語한다.

4) 中風不語

語澁은 모두 風에 屬하는데, 內徑에 依하면 腎氣가 內奪되면 厥逆하여 舌瘖足廢한다고 하였다.

證治 : 中風瘖瘖에는 淸心散, 解語丸, 淸神解語湯을 쓴다.

中風에 飲食坐臥는 如常하며 不語하는데는 小續命湯 去附子 加石菖蒲 竹茹 遠志를 쓴다.

喉間에 痰盛한 者는 滌痰湯을 쓴다.

< 聲音 >

1) 聲音出於腎

心은 聲音을 主管하며, 肺는 聲音의 門이고, 腎은 聲音의 根源이다.

風寒暑濕과 氣血痰熱 等の 邪氣가 心肺에 있으면 病이 上脫에 있으므로 證을 따라 解散시켜야 하며 邪氣가 解散되면 聲音을 發한다.

만약 腎氣가 虛하여 病이 되면 諸氣를 納하여 歸散시킬 수 없으므로, 氣逆하면서 위로는 咳嗽 痰盛하며, 或은 喘하고, 或은 脹하여 胸腹이나 白骸가 모두 牽掣하며, 咳嗽가 甚해지고, 氣는 더욱 乏하며, 聲은 더욱 乾하게 된다.

咽喉는 水穀의 道이고, 喉嚨은 氣가 上下로 通하는 곳이며, 會厭은 聲音의 戶이고, 口脣은 聲音의 扇이며, 舌은 聲音의 機이고, 懸雍垂는 聲音의 關이며, 頰頰은 分氣가 泄하는 곳이고, 橫骨은 神氣所使로서 發舌을 主한다.

그러므로 鼻洞에 있는 涕가 出하되 不收하는 것은 頰頰이 不開되어 分氣가 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會厭이 小而薄하면 氣를 發함이 빨라서 開闔이 쉽고 氣를 出함이 容易하다. 會厭이 大而厚하면 開闔이 어렵고 氣가 出함이 늦어서

重言한다.

2) 聽聲音辨病證

喘息을 살피고 音聲을 들어서 아픈 바를 辨別하는 것이다.

中氣가 盛하고 臟氣가 滿하며, 氣가 勝하여 恐에 傷하면 聲音이 室中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中氣가 濕하기 때문이다.

病人의 語聲이 숙속하여 驚呼하기를 잘 하는 것은 骨節間에 病이 있는 것이고, 語聲이 暗暗하여 不徹한 것은 心膈間에 病이 있는 것이고, 語聲이 寂寂然하여 細하며 長한 것은 頭中에 病이 있는 것이다.

聞而知之를 爲之聖이라 함은, 卽 五音을 듣고 病을 辨別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肝病은 聲音이 悲하고, 肺病은 促하며, 心病은 雄하고, 脾病은 滿하며, 腎病은 沈하고, 大腸病은 長하며, 小腸病은 短하고, 胃病은 速하며, 膽病은 淸하고, 膀胱病은 微하다.

聲音은 五音에 附合되는 바, 金聲은 響하며, 土聲은 濁하고, 木聲은 長하며, 水聲은 淸하고, 火聲은 燥하다. 土音은 深甕속에서 말하는 것과 같으며, 濕이 勝하면 音聲이 甕中에 나오는 소리 같은데 濕은 水氣이기 때문이다.

< 聲音諸證 >

1) 卒然無音

原因 : 卒然無音하는 것은 寒氣가 會厭에 侵入하면 會厭이 發할 수도 없고 下部에 到達하지도 못하여서 開闔作用이 圓滑하지 못한 때문이다.

醉臥하여 當風하면 失音하게 된다.

證治 : 갑자기 失音하는 데는 荊蘇湯, 人蔘荊

芥散, 射干湯을 쓴다.

卒瘞하는 데는 杏仁 28.125g을 熬하고 桂心沫 9.575g을 진흙처럼 和搗하여 李核大로 取하여 綿에 얹은 다음 汁을 내어 服用한다. 또한 竹葉을 濃煎服하고, 橘皮를 濃煎服한다.

風冷으로 因해 卒失音하는 데는 紫蘇葉 荊芥穗를 各 37.5g을 搗하여 汁을 取한 다음 酒에 넣어 서로 和溫하여 半盞을 服用한다.

2) 瘡瘡

瘡은 邪氣가 陰分에 入한 것이다. 內經에 依하면, 邪氣가 陰分에 入하여 搏하면 瘡이 되는데 舌瘡과 喉瘡의 二證이 있다.

舌瘡은 中風患者가 舌不轉運하는 것을 例로 들 수 있고, 단지 舌本만 轉運하지 못하여 言語를 成說하지 못하는 것이며 音聲은 發하는 것이다. 喉瘡은 勞嗽 等으로 失音하는 것을 例로 들 수 있고, 단지 喉中만 聲嘶되며 舌本은 轉運하고 言語를 成說하는 것이다.

證治 : 舌瘡은 風痰을 除去시켜야 하므로 祛風滌痰湯을 쓴다.

喉瘡은 聲嘶를 主治해야 하므로 潤肺丸을 쓴다.

3) 聲嘶

聲嘶證은 破聲을 말하는 것인데, 音聲이 淸雅하지 못하고 沈濁한 것을 말한다.

原因 : 咳嗽가 오래되어 聲嘶가 되는데 喉頭가 破裂되었기 때문이며, 咽門病은 아니다. 또한 氣虛하여 胃氣가 甚冷하거나, 血虛受熱하여 發한다.

證治 : 傷寒咳嗽로 咽痛 聲嘶한 데는 柴胡升麻湯을 쓴다.

久嗽聲嘶로 語音不出하는 데는 潤肺丸을 쓴다.

血虛受熱한 聲嘶에는 靑黛, 蛤粉을 蜜丸하여 服用한다.

4) 腎虛失音

原因 : 腎氣가 虛弱하여 能히 諸氣를 受納하여 本原에 歸還시키지 못하므로 聲音을 發하지 못한다.

大病後 或은 吐瀉後에 津液이 涸竭되어 咽隘에 到達하지 못하여 發하기도 한다.

證治 : 腎水不足으로 聲音不出하는데는 腎氣丸, 人蔘平補湯을 쓴다.

腎虛하여 火氣逆上하면 肺金이 燥하게 되므로 咳嗽痰盛하며 或은 喘息하며 聲音不出하는데는 金水清音湯을 쓴다.

大病後에 聲音不出하는데는 腎氣丸을 쓴다.

3. 內科診斷學 4)

< 언어장애 >

언어장애에는 구음장애와 실어증이 있다. 구음장애란 언어를 발음하기 위한 발어기관(혀, 입술, 구개, 턱, 후두 등의 여러 근육)의 이상마비, 경련, 긴장이상, 실조증 등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며, 실어증은 더욱 고위의 중추장애에 의한 언어의 개염구성, 언어의 청취 또는 발어의 중추성 장애로 인한 것이다. 환언하면, 실어증에서는 발어기관에 아무런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며 또한 청기관 그 자체의 것은 정상인데도 언어의 장애를 인지하는 것이다.

1. 구음장애

1) 마비성 구음장애

구음근 마비에 의한 것으로 구(연구)마비증상으로 되어 연하장애와 동시에 출현되는 일이 많다. 마비 부위에 의해서 핵상성, 핵성, 말초성

(핵하성)마비와 가성마비로 분류된다.

① 핵상성 마비

② 핵성 마비

③ 말초성 마비

④ 가성 마비

2) 경련 또는 근긴장 이상에 의한 구음장애

① 경련에 의한 구음장애

② 근긴장 이상에 의한 구음장애

③ 근육의 이상운동에 의한 구음장애

3) 실조성 구음장애

개개의 근육에는 마비가 없지만, 협조운동장애에 의해서 구음장애를 나타낸다.

① 다발성 경화증

② 그 밖의 운동실조성 질환

2. 실어증

실어증이란 대뇌전두엽 피질의 운동성 언어중추 및 측두엽 피질의 감각성 언어중추장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이 깊은 연합야의 문제도 병합해서 진단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반된 신경증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혈관장애는 가장 잘 실어증을 나타내는 질환의 하나이지만, 장애부위 주변 부중에 의해서 일과성의 기능저하역이 확대되어 있는 것이 있으므로 병태가 안정상태로 들어갈 때까지는 증상이 계속 변화되며 계속된다.

4. 諸病源候論校釋 5)

< 風舌強不得語候 >

脾脈絡胃, 夾咽, 連舌本, 散舌下. 心之別脈, 系舌本.

今心脾二臟受風邪, 故舌強不得語也.

< 風失音不得候 >

喉者，氣之所以上下也。會厭者音聲之戶，舌者聲之機，唇者聲之扇。風寒客于會厭之間，故卒然無音。皆由風邪所傷，故謂風失音不語。

< 風冷失聲喉 >

風冷失聲者，有風冷之氣客于會厭，傷于懸雍之所為也。聲氣通發，事因關戶。會厭是音聲之戶，懸雍是音聲之關。風冷客于關戶之間，所以失聲也。

< 中冷聲嘶候 >

中冷聲嘶者，風冷傷于肺之所為也。肺主氣，五臟同受氣于肺，而五臟有五聲，皆稟氣而通之。氣為陽，若溫暖即陽氣和宣，其聲通暢。風冷為陰，陰邪搏于陽氣，使氣道不調流，所以聲嘶也。

5. 千金方<sup>6)</sup>

< 風寒客中 >

風寒之氣客于中，滯而不發，故瘖不能言，宜服發表之藥，不必治瘖。

6. 聖濟總錄<sup>7)</sup>

< 咳嗽失聲 >

論曰咳嗽失聲者，蓋肺氣上通于喉嚨。喉嚨者肺之系，肺感寒微者成咳嗽，咳嗽不已，其氣奔迫，窒塞喉中，故因而失聲也。

< 風冷聲嘶 >

論曰中風冷聲嘶者，其聲嘶啞不通暢也。蓋肺象金，金主聲，人五臟有五聲，皆稟肺氣而通之。今風冷乘于肺經，則氣道不調，故聲音不出而嘶啞也。

< 咽喉腫痛語聲不出 >

論曰咽喉腫痛，語聲不出者，風邪壅熱，客于脾肺之經，邪熱隨經，上搏于咽喉，則血脈壅遏，故令喉間腫痛，甚則氣道窒塞，語聲不出也。

7. 仁齋直指方<sup>8)</sup>

< 大驚不語 >

大驚入心，則敗血頑痰，填塞心竅，故瘖不能言，宜密陀僧散、遠志丸、茯神散之類。

< 聲出于腎 >

心為聲音之主，肺為聲音之門，腎為聲音之根，風寒暑濕，氣血痰熱，邪氣有乾于心肺者，病在上脘，隨證解之，邪氣散則天斗鳴矣。若夫腎虛為病，不能納諸氣以歸元，故氣逆而上，咳嗽痰塞，或鳴或脹，胸腹百骸，俱為之不利，其嗽愈重，其氣愈乏，其聲愈乾矣。

8. 本草綱目<sup>9)</sup>

< 雜證 >

音瘖有肺熱肺痿，及風毒入肺，蟲食肺，或寒包熱，狐惑，或失音不語，舌強不語，或痰迷，或腎虛瘖俳。

9. 醫宗金鑑<sup>10)</sup>

< 疹門·失音 >

疹毒聲啞，肺熱壅元，疹升麻大有功，已發加減涼膈散，沒後兒茶音即清。

註：失音者乃熱毒閉塞肺竅而然也。疹初失音者，元疹升麻湯主之。疹已發而失音者，加減涼膈散主之。疹沒後聲啞者，兒茶散主之。

< 痘中雜證·失音 >



痘之始終喜音清毒熱壅塞啞無聲喉中有痘不須治若是毒攻甘桔寧。

註：音者心之聲也。心氣上達於肺而作音肺清則音清肺熱則音啞如痘當灌漿而音啞者此喉中有痘礙於氣道待外痘收斂而內痘自清不必施治若未嘗灌而音已先啞者此熱毒壅於肺竅而然也。宜加味甘桔湯治之。

## 10. 中國醫學大辭典<sup>11)</sup>

『瘖』不能言也。邪入於陰即瘖。厥氣走喉而不能言，手足清，大便不利，取足少陰。按，此證皆肺經爲病，暴病得之，爲邪鬱氣逆，久病得之，爲津枯血槁，治法如下。

- 1) 先內熱而後受寒，或先外感而食寒物者，并宜辛涼和解，秒兼辛溫散之，用消風散加薑汁，緩緩調服，或一味生薑汁亦可。
- 2) 火邪遏肺傷肺，咽破聲嘶而痛者，宜生脈散合六味丸作湯，或用清咽寧肺湯。
- 3) 肥人痰溼壅滯，氣道不通而聲瘖者，宜二陳湯，導痰湯滌之，一切滋補，皆爲禁劑。
- 4) 久病失音者，此氣虛挾痰，宜滋肺腎之化源，宜生脈散下都氣丸。
- 5) 咽乾聲槁者，宜潤肺爲主，用生脈散合異功散，若膈內作痛者，此有瘀血，宜代抵當丸。
- 6) 冬月咳嗽，寒痰結於咽喉，語聲不出者，此寒氣客於會厭，故卒然而瘖，宜麻杏甘石湯，或古今錄驗續命湯，或玉粉丸。
- 7) 失音不語，已經發散潤肺而不應者，宜生脈散，并嚙化童真丸。
- 8) 咳喘氣促，胸中滿悶，聲音不出者，此肺胃氣燥，不能祛散餘邪，宜紫菀散。
- 9) 叫罵聲嘶而喉破失音者，宜十全大補湯。

- 10) 肺氣虛寒，爲厲風所傷，喘嗽聲嘶，或先傷熱，寒鬱熱邪，聲音不出者，宜千金寧蜜膏。
- 11) 咽痛起於四五日間，或因劇咳而得，或多稠痰結痰，咽喉上頸腫痛，聲啞音破，脈大緩而右寸尤甚者，此熱結語肺，宜辛涼之劑，用桔梗湯加蔥白，香豉，荊芥，薄荷，兼有風寒客邪者，宜桂枝，芍藥，薑，棗，膠飴之屬，并以薑製黃蘗嚙之。
- 12) 暴啞聲不出，咽痛異常，欲嗽而不能嗽，或無痰，或清痰上溢，脈多弦緊或數疾無倫者，此大寒犯腎，宜麻黃附子細辛湯，并以蜜製附子嚙之。
- 13) 熱而失音者，宜槐花瓦上炒令香熟，置地上出火毒，三更後牀上仰臥，隨意服之。
- 14) 寒而失音者，宜杏仁三分(去皮尖，炒，別研)加肉桂一分，和如杏核大，綿裹含，細細嚙之，或以桂末著舌下嚙津亦妙。
- 15) 陰虛聲啞。①未破身十六七童男女，五更早起未食物之前，不必漱口，爛嚼海南子檳榔，一二個，與病者服之，換十八嚼至十次，其病自愈，男病用童女嚼，女病用童男嚼。②新好槐花放新瓦上，慢火炒熟，放身旁，間送一二粒置口中咀嚼之，使喉中當有氣味，久之自痛③生白礬，煉蜜爲丸服之。
- 16) 風冷失音，以紫蘇梗荊芥根各一兩，研汁入酒和，溫服半盞。
- 17) 聲啞久不愈。①硼砂一兩，玄明粉膽星各一錢，訶子肉二錢，冰片三分，其爲末，外可大烏梅一兩，搗如泥，丸如龍眼核大，每用一丸化，數次即愈。②豬肉二斤，熬去滓，入白蜜一斤，再煉少頃，瀝淨入瓷器內，俟成膏，不拘時挑服一匙。③通草水煎服，或用橘皮煎濃汁，俟冷飲之。④訶子(泡去核)木通各一兩，甘草五錢，水三升，煎至升半，入生薑汁地黃汁各一合，再煎數沸，俟

溫分六服,或用河間訶子湯.⑤陳皮五兩,水三升,煮取一升,去渣燉服,參看無言及暴瘖條.

### 11. 漢方 眼耳鼻咽喉科學 <sup>12)</sup>

< 聲音疾患 >

#### 1. 音啞症

##### 1) 聲瘖

原因 : 風寒이 皮毛에 侵犯하면 熱이 內部에 鬱滯되어 肺金이 不清하거나 火邪가 肺에 侵犯하거나 風寒 濕暑 痰熱의 邪氣가 心肺에 侵犯했을 때, 腎虛로 陰虛火旺하였을 때 이 疾患을 誘發하며, 或은 會厭에 腫瘍이나 損傷이 있을 때, 或은 高聲 絶叫로 咽喉에 異常을 가져왔을 때 등에서 發病된다.

##### 2) 卒然無音

原因 : 寒邪가 會厭에 侵犯하여 會厭에서 發聲하지 못하며, 또한 發聲이 下部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開闔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이다. 或은 飲酒後에 風邪가 侵犯하였거나 단순히 風寒에 感觸되었거나 感冒後에 風寒에 感觸되었을 때, 少陰의 復이나 歲火가 不及할 때 등에서 本疾患을 誘發한다.

##### 3) 風熱音啞

原因 : 風熱邪가 肺에 侵犯하였기 때문이다. 즉, 金實無聲을 말한 것이다.

##### 4) 陰虛音啞

原因 : 性生活 過度로 腎이 損傷을 받았을 때, 絶叫 哭泣 聲歌 등에 의하여 聲帶에 損傷을 가져왔을 때, 吐血後에 陰液이 損傷을 받았을 때 등에 의하여 誘發된다. 즉 金破無聲인 것이다.

#### 2. 失音證

##### 1) 咳嗽失音

原因 : 咳嗽을 많이 하므로 오래되면 熱에 의해서 肺痿가 되고 眞陰이 枯渴되었기 때문이다.

##### 2) 風寒失音

原因 : 風寒이 갑자기 肺에 侵犯하여 肺氣가 鬱結되었기 때문이다.

##### 3) 中風失音

原因 : 中風으로 인하여 失音이 된다.

##### 4) 聲嘶

原因 : 肺氣가 不利하고 咽喉가 技能을 喪失하였기 때문이다. 喉癰이 있을 때, 肺結核이 있을 때, 婦人이 妊娠 9個月이 되었을 때, 虛損이 極甚하고 氣血이 不足할 때, 産後나 혹은 胸間에 熱이나 血이 蓄積되어 疼痛이 極甚할 때 등에서 失音이 된다.

### 12. 實用中醫內科學 <sup>14)</sup>

< 失音 >

1. 定義 : 失音是一介症狀, 凡是語聲嘶啞, 甚則不能發聲者, 統謂之失音. 主要由于感受外邪, 肺氣壅遏, 聲道失于宣暢; 或精氣耗損, 肺腎陰虛, 聲道失于滋潤所致.

古代將失音稱爲瘖或暗.

#### 2. 病因病機

1) 感受外邪 : 由于風寒外襲, 邪鬱于肺, 肺氣失于宣暢, 會厭開合不利, 音不能出, 以致卒然聲嘶.

2) 久病體虛 : 慢性疾患, 久咳勞嗽, 延延傷正, 或酒色過度, 素質不強, 以致體虛積損成勞, 陰虛肺燥, 津液被灼, 或肺腎陰虛, 虛火上炎, 肺失濡潤, 以致聲音.

3) 情志刺激 : 此因憂思鬱怒, 或突受驚恐, 而致氣機鬱閉, 聲音不出.

4) 用聲過度 : 用聲過多 過強, 損傷聲道, 津氣被耗, 亦可導致失音.

### 3. 辨證論治

#### 實證

##### 1) 風寒

① 症狀 : 卒然聲音不揚, 甚則嘶啞; 或兼咽痒, 咳嗽不爽, 胸悶, 鼻塞聲重, 寒熱, 頭痛等症, 口不渴, 舌苔薄白, 脈浮.

② 治法 : 疏風散寒, 宣肺利竅.

③ 治方 : 宣用三拗湯, 杏蘇散等.

##### 2) 痰熱

① 症狀 : 語聲啞啞, 重濁不揚, 咳痰稠黃, 咽喉乾痛, 口乾苦, 或有身熱, 舌苔黃膩, 脈滑數.

② 治法 : 清肺泄熱, 化痰利咽.

③ 治方 : 清咽寧肺湯.

##### 3) 氣鬱

① 症狀 : 突然聲啞不出, 或程發作性. 常因情志鬱怒悲憂引發.

② 治法 : 舒肝理氣, 開鬱利肺.

③ 治方 : 小降氣湯, 柴胡清肝湯加減.

#### 虛證

##### 1) 肺燥津傷

① 症狀 : 聲嘶, 音啞, 咽痛, 喉燥, 口乾. 或兼咳嗽氣逆, 痰少而粘. 舌質紅少津, 苔薄, 脈小數.

② 治法 : 清肺生津, 潤燥利咽.

③ 治方 : 桑杏湯, 清燥救肺湯等.

##### 2) 肺腎陰虛

① 症狀 : 聲音嘶啞逐漸加重, 日久不愈. 兼見乾咳少痰, 甚則潮熱盜汗耳鳴目眩腰痠膝軟刑體日瘦. 舌質紅, 苔少, 脈細數.

② 治法 : 滋養肺腎, 降火利咽.

③ 治方 : 百合固金湯, 麥味地黃湯等.

## 13. 黃帝內經類釋<sup>15)</sup>

### 『瘖』

瘖爲說話發不出聲音, 又稱“失音”. 『內經』對於聲音和言語的發生與些器官有關, 作了詳盡的論述, 而且與近代生理學基本一致, 認爲人所以能發出聲音, 是會厭, 口脣, 舌, 懸雍垂, 頰頰, 舌骨等協同作用, 又與氣的盛衰有關. 所以, 凡此些發音器官有病或氣虛, 氣不暢皆可影響聲音, 重即引起失音. 從經絡來看, 足三陰, 手少陰, 手太陰諸陰經都與咽喉或舌本相連, 故邪“搏陰即爲瘖”.

暴瘖多爲實, 因邪阻會厭, 開闔不利. 虛損病後期亦可出現瘖, 屬虛, 爲氣虛無力沖岳發音器官所致. 對於暴瘖的治療, 『內經』指出用鍼刺放血, 對後世治音啞證有很大啓發, 臨床證明, 鍼刺放血治療瘖證療效較爲可靠.

## 14. 黃帝內經 素問<sup>16)</sup>

### < 脈要精微論 >

心脈搏堅而長, 當病舌卷不能言.

### < 宣明五氣論 >

五邪所亂, 邪入於陽則狂, 邪入於陰則痺, 搏陽則爲癲疾, 搏陰則爲瘖, 陽入之陰則靜, 陰出之陽則怒, 是爲五亂.

### < 奇病論 >

帝曰, 人有重身, 九月而瘖, 此爲何也. 岐伯對曰, 胞之絡脈絕也. 胞絡者, 系于腎, 少陰之脈, 貫腎系舌本, 故不能言.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無治也, 當十月復.

### < 腹中論 >

帝曰，有病膺腫頸痛，胸滿腹脹，此爲何病，何以得之，岐伯曰，名厥逆。帝曰，治之奈何，岐伯曰，灸之則瘖，石之則狂，須其氣并，乃可治也。帝曰，何以然，岐伯曰，陽氣重上，有餘于上，灸之則陽氣入陰，入則瘖，石之則陽氣虛，虛則狂。

< 脈解論 >

所謂入中爲瘖者，陽盛而衰故爲瘖也。內奪而厥則爲瘖俳，此腎虛也，少陰不至者厥也。

< 咳論 >

岐伯曰，肺咳之狀，咳而喘息有音，甚則唾血。心咳之狀，咳則心痛，喉中介介如梗狀，甚則咽腫，喉痺。

15. 黃帝內經 靈樞<sup>17)</sup>

< 邪氣藏府病形 >

心脈急甚者爲瘖瘖，微急，爲心痛引背，食不下。緩甚，爲狂笑，微緩，爲伏梁，在心下，上下行，時唾血，大甚，爲喉啞。

< 雜病 >

噤乾，口中熱如膠，取足少陰。

喉痺不能言，取足陽明，能言，取手陽明。

< 經脈篇 >

手少陰之別，名曰通里，循經入于心中，系舌本，屬目系，其實則支膈，虛則不能言。

足陽明之別，名曰豐隆，其別者，循脛骨外廉，上絡頭項，合諸經之氣，下絡喉嚨，其病氣逆則喉痺卒瘖。

< 憂恚無言篇 >

黃帝問于少師曰，人之卒然憂恚而言無音者，何道之塞，何氣出行，使音不彰，願聞其方。少師答曰，咽喉者，水穀之道也。喉嚨者，氣之所以上下者也。會厭者，音聲之戶也。口唇者，音聲之扇也。舌者，音聲之機也。懸雍垂者，音聲之關也。頰頰者，分氣之所泄也。橫骨者，神氣所使，主發舌者也。故人之鼻洞涕出不收者，頰頰不開，分氣失也。是故厭小而疾薄，則發氣疾，其開闔利，其出氣易，其厭大而厚，則開闔難，其氣出遲，故重言也。人卒然無音者，寒氣客于厭，則厭不能發，發不能下，至其開闔不致，故無音。

< 九鍼論 >

五邪，邪入於陽，則爲狂，邪入於陰，則爲血痺，邪入於陽，轉則爲癩疾，邪入於陰，轉則爲瘖。

16. 醫學綱目<sup>18)</sup>

< 病因有二 >

瘖者，邪入陰部也。經云：邪搏于陰則爲瘖，又云：邪入于陰，搏則爲瘖。然有二證：一曰舌瘖，乃中風舌不轉運之類，但舌本不能轉運言語，而喉啞音聲則如故也。二曰喉瘖，乃勞嗽失音之類，但喉中聲嘶，而舌本則能轉運言語也。

17. 張氏景岳全書<sup>19)</sup>

< 論證 >

聲音出于臟氣，凡臟實即聲宏，臟虛即聲怯，故凡五臟之病，皆能爲瘖。如以憂思積虛久而至瘖者，心之病也。驚恐憤郁猝然致瘖者，肝之病也。或以風寒濕于皮毛，火燥刑于金臟，爲咳爲嗽致瘖者，肺之病也。或以飢飽，或以疲勞，致敗中氣而喘促

爲瘖者，脾之病也。至于酒色過傷，慾火燔燂，以致陰虧而盜氣于陽，精竭而移槁于肺，肺燥而嗽，嗽久而瘖者，此腎水枯涸之病也。是五臟皆能爲瘖者，其概如此。然舌爲心之苗，心病即舌不能轉，此心爲聲音之主也。聲由氣而發，肺病即氣奪，此氣爲聲音之戶也。腎藏精，精化氣，陰虛即無氣，此腎爲聲音之根也。經曰：言而微，終日乃復言者，此氣之奪也，而況于無聲者乎？是知聲音之病，雖由五臟，而實惟心之神，肺之氣，腎之精，三者爲之主耳。然人以腎爲根蒂，元氣之所由生也，故由精化氣，由氣化神，使腎氣一虧，即元陽寢弱，所以聲音之標在心肺，而聲音之本即在腎，觀之經云：陽盛已衰，故爲瘖也。內奪而厥，即爲瘖俳，此腎虛也。然即腎爲聲音之根，信非謬矣。

瘖啞之病，當知虛實，實者其病在標，因竅閉而瘖也。虛者其病在本，因內奪而瘖也。竅閉者，有風寒之閉，外感證也。有火邪之閉，熱乘肺也。有氣逆之閉，肝滯強也。風閉者，可散而愈，火閉者，可清而愈。氣閉者，可順而愈，此皆實邪之易治者也。至若痰涎之閉，雖日有虛有實，然非治節不行，何致痰邪若此？此其虛者多而實者少，當察邪正分緩急而治之可也。內奪者，有色慾之奪，傷其腎也，憂思之奪，傷其心也，大驚大恐之奪，傷其膽也，飢餒疲勞之奪，傷其脾也，此非各求其屬，而大補元氣，安望其嘶敗者復完，而殘損者復振乎？此皆虛邪之難治者也。然難易之辨固若此，而猶有難易之辨者，即辨其久暫，辨其病因，乃可悉焉。蓋暫而近者易，漸而久者難，脈緩而滑者易，脈細而數者難，素無損傷者易，積有勞怯者難，數劑即開者易，久藥罔效者難。此外復有號叫歌唱悲哭，及因熱極暴飲冷水，或暴吸風寒而致瘖者，乃又其易者也。若此者但知養息，即弗藥可愈，是皆所當辨者。

< 論治 >

風寒濕于皮毛，即熱郁于內，肺金不清，而閉塞喉竅，咳嗽甚而聲瘖者，宜參蘇飲二陳湯，小青龍湯，金水六君煎三拗湯之類以散之。

火邪侵肺，上焦熱甚而聲瘖者，宜四陰煎麥門冬湯主之。心火盛者，二陰煎。胃火上炎者，竹葉石膏湯。肝膽火盛者，柴胡清肝湯之類主之。勞嗽痰喘挾火者，竹葉麥門冬湯主之。

肝邪暴逆氣閉爲瘖者，宜小降氣湯潤下丸七氣湯之類主之。

痰氣滯逆爲瘖者，如二陳湯六安煎貝母丸潤下丸之類，皆治標之可用者。或用鹽湯探吐之亦可。其有虛痰或痰火之甚者，當于痰飲門參酌治之。

虛損爲瘖者，凡聲音之病，惟此最多，當辨而治之。凡色慾傷陰，病在腎者，宜六味丸八味丸左歸丸右歸丸，人參平肺湯大補元煎之類主之。或兼肺火者，宜一陰煎四陰煎人參固本丸之類擇而用之。

凡大驚大恐，猝然致瘖者，肝膽受傷也，宜七福飲五福飲十味溫膽湯平補鎮心丹定志丸之類主之。

凡飢餒疲勞，以致中氣大損而爲瘖者，其病在脾，宜歸脾湯理陰煎補中益氣湯補陰益氣煎溫胃飲之類主之。

凡憂思過度，致損心脾而爲瘖者，宜七福飲歸脾湯之類主之。

凡病人久嗽聲啞者，必由元氣大傷，肺腎俱敗，但宜補肺氣，滋腎水，養金潤燥，其聲自出。或略加訶子百藥煎之類，兼收斂以治其標，務宜先本後末，庶可保全。若見其假熱而過用寒涼，或見其痰盛而妄行消耗，則末有一免者矣。

凡患風毒或病喉癰病既愈，而聲則瘖者，此其懸壅已損，雖瘖無害也，不必治之。

## 18. 河間六書<sup>20)</sup>

### < 不能言 >

腎虛內奪，則為瘖痲，蓋內奪而厥，舌瘖不能言，二足廢不為用，腎脈虛弱其氣厥不至，舌不仁。經云：瘖痲足不履用，音聲不出者，地黃飲子主之。

燥乾者，金肺之本，燥金受熱化以成燥澁也。兼火熱，致金衰耗液而損血，鬱而成燥者，由風能勝濕熱能液，故經云：風熱火同陽也，寒濕燥同陰也。又燥濕小異也，金燥雖屬秋陰，而其性異于寒濕，而反同于風熱火也。于如大便乾澁，乃大腸受熱，化成燥澁。經云：諸澁枯涸，又如癱瘓中風，皆因火熱耗損血液，元腑閉塞，不能浸潤，金受火鬱，不能發聲者是也。蓋肺主聲也，肢痛綆淚者，風熱濕相搏，遂致偏枯，語音澁，手足不隨，然中寒吐瀉，亡液而成燥，亦以鮮矣。亦有寒濕相鬱，榮衛不能開發貫注，多成偏枯，經曰：諸澁枯涸，乾勁皴揭，屬於燥也。

### < 暴瘖 >

暴瘖，猝瘖也。金肺主聲，故五行惟金響，金應于乾，乾為天，天為陽，為乾為動，金木燥，為涸為收為斂，為勁切為剛潔，故諸能鳴者，無越此也。凡諸發語聲者，由其形氣之鼓擊也。鼓擊者，乃健動之用也。所謂物寒則能鳴者，水實制火，火不克金也。其或火旺水衰，熱乘金肺，而神濁氣鬱，則暴瘖無聲，經言：內奪而厥，則為瘖痲，此腎虛也。

## 19. 丹溪心法<sup>21)</sup>

### < 分經辨因 >

足少陰之脈，挾舌本，足太陰之脈，連舌本，手少陰之別脈，系舌本，故此三脈虛則痰涎虛壅，閉塞氣脈道，而舌不能轉運言語也。若此三脈亡血，

則舌無血榮養而然，治當補血。又此三脈，風熱中之，則舌脈弛縱而然，風寒客之，則舌脈縮急而然，隨證治之。

## 20. 古今醫統<sup>22)</sup>

### < 總論證治 >

聲音者，內關五臟，其為病也，因于六氣。金剛真言論曰：東方青色，入通于肝，其音角，其聲呼。南方赤色，入通于心，其音徵，其聲笑。中央黃色，入通于脾，其音宮，其聲歌。西方白色，入通于肺，其音商，其聲哭。北方黑色，入通于腎，其音羽，其聲呻。此所以聲音通于五臟者也。直指云：心為聲音之主，肺為聲音之門，腎為聲音之根，此特言其所重者。舌為心之苗，心病舌不能轉，則不能語言，暴病者尚可醫治，久病者不可治也。故心為聲音之主者此也。肺者屬金，主清肅，外司皮子，風寒外感者，熱鬱于內，則肺金不清，咳嗽而聲啞，故肺為聲音之門者此也。腎者人身之根本，元氣發生之主也，腎氣一虧，則元氣寢弱而語音瘖者有之。經曰：言而微，終日乃復言者，此奪氣也。錢氏方，小兒吐瀉利，小便過多，以致脾虛不飲食，用益黃散作效。數日後，忽爾不語，錢氏知其脾氣已復，腎氣尚虛，投以地黃丸益腎，相繼數劑，遂能言，于是益信聲音之根出于腎也不誣。

### < 病分三因 >

有內熱痰鬱室塞肺金，而聲啞及不出者，急有咳嗽久遠，傷氣而散者，此內因也。有外受風寒，腠理閉塞，寒束于外，鬱嗽而聲啞，三拗湯之類；此外因也。又有忽暴吸風，卒然聲不出者，亦外因也，有因爭竟，大聲號叫，以致失聲，或因歌唱傷氣而聲不出，此不內外因也，養息自愈。

< 證本六淫 >

風寒燥熱，致聲不清者，人共知之，暑濕相乾者，鮮有之也。經曰：因于濕，首如斗，聲如從室中言，此中氣之濕也。直指云風寒暑濕燥火痰氣有乾于心肺者，病在上脘，隨證解之，邪氣散則天斗鳴矣。惟夫腎虛為病，不能納諸氣以歸元，故氣奔而上，咳嗽，痰壅，或喘或脹，足冷骨痠，胸腹百骸俱為之牽掣，其嗽愈重，其氣愈乏，其聲有乾，君子當于受病之處圖之可也。

風寒咳嗽失音者，三拗湯主之。熱痰壅盛聲不出者，鹽湯探吐之。大腑秘結，上下不通，聲氣不出者，大柴胡湯主之。此皆切于病證，其效如響應也。

凡病人久嗽聲啞，乃是元氣不足，肺氣不滋，宜補氣養金潤燥，其聲自亮。若虛勞之人，則宜滋腎水，潤肺金為本。訶子百藥煎，收斂以治其標，標本兼治，此十全也。久病人不語，為心氣絕者死。

21. 臨證指南醫案<sup>23)</sup>

< 失音 >

外冷內熱 久逼失音 用兩解法。(寒熱客邪迫肺) 麻杏甘膏湯

先失音 繼喉痺 是氣分窒塞 微寒而熱 水飲噎出 咯痰隨出隨阻 此仍在上痺 舌黃口渴。議與苦辛寒方

喉乾失音 一月未復 津液不上供 肺失清肅 右寸脈浮大。

勞損氣喘失音 全屬下元無力 真氣不得上注 紛紛清熱治肺 致食減便溏 改投熱藥 又是劫液宜乎 喉痛神疲矣。用補足三陰方法。

久咳失音喉痺。

夫宮商角徵羽 歌哭呼笑呻 此五臟所屬之音聲

也。原其發聲之本在於腎 其標則在乎肺 病有虛實 由咳嗽而起者居多 或肺有燥火 外感寒邪 火氣鬱遏而瘖者 有肺金燥甚 木火上炎 咽乾喉痺而瘖者 有風熱痰涎 壅遏肺竅而瘖者 有嗔怒叫號 致傷會厭者 亦有龍相之火上炎 凌斗肺金 久咳不已而瘖者 有內奪而厥 則為瘖俳 此腎虛也。是即暴中之不能言者也。先生有金空則鳴 金實則無聲 金破碎亦無聲 此三言足以該之矣。有邪者 是肺家實也。無邪者 是久咳損肺 破碎無聲也。其治法有寒者散寒 有火者清火 有風痰則 祛風化痰 若龍相上炎 斗肺者 宜金水同治。若暴中之瘖 全屬少陰之虛 宜峻補肝腎 或彘兼痰火而治之。其用藥總宜甘潤 而不宜苦燥 斯得之矣。

22. 中醫歷代醫論選<sup>24)</sup>

聞聲須察虛實論

……陰陽不外燥濕，燥邪乾澀，聲多厲仄，或乾噉，或咳聲不揚，或咳即肩痛，或乾咳連聲，或太息氣短；化火即多言，甚即譫狂，其聲似破似啞，聽之有乾澀不利之象。濕邪重濁，聲必低平，壅塞不宣，如從瓮中作聲者然，或默默懶言，或昏昏倦怠，或多嗽多痰，或痰在喉中，漉漉有聲，或水停心下，汨汨有聲，或多噎氣，周聲酸痛，沈重難展，化火即上蒸心肺，神志模糊，呢喃自語，或昏沈迷睡，一派皆重濁不清之象，流露于呼吸之間。他如出言壯厲，先輕後重者，外感也；先重後輕者，內傷也。妄見妄言為呓語，無稽狂叫為妄言，實也。又有神虛忒語，虛煩似狂二症，當以脈證，舌苔參之，斷不可認以為實，若語不接續為鄭聲，無人始言為獨語，此屬虛居多。又有言而微，終日乃復言者，此奪氣也；衣被不斂，言語善惡不避親疎者，此神明之亂也；二者皆屬危候。又有痰壅肺絡，咳聲不揚，金實無聲也；勞瘵音啞，金破無聲也。腹形充大，鼓之板實者，實也；

腹皮急，鼓之空空者，虛也。然即燥濕，表裏，虛實，不皆可聞而知之乎？而癯不止此，聲出于肺而根于腎，其有無還聲如鴉聲者，乃肺，腎將絕，金水不交，聲音不能發自丹田，亦不能還至丹田，故聲直而無回音耳。然亦有痰閉肺竅使然者，又當以辛涼清潤，開痰利竅，不可竟作不治論。至喘促一證，尤當辨認。肺為氣之統，腎為氣之根，肺主出氣，腎主納氣。陰陽相交，呼吸乃和。若出納升降失常，斯喘作焉。實喘責在肺，虛喘責在腎。實喘者，胸滿聲粗，氣長而有餘；虛喘者，呼長吸短，息促而不足。實喘者，出氣不爽；虛喘者，入氣有音。實喘有水邪射肺，有痰飲遏肺，有六氣之邪乾肺，上焦氣壅，治宜疎利；虛喘為腎不納氣，孤陽無根，治宜固攝。虛實兩途，陰陽異治。然即聞聲之道，願不重哉！經故曰：“聞而知之之謂聖”（《醫原》）

### 23. 中醫名言大辭典<sup>25)</sup>

< 清·張璐·張氏醫通·瘖 >

暴啞聲不出，咽痛異常，卒然而起，或欲咳而不能咳，或無痰，或清痰上溢，脈多弦緊，或數疾無倫，此大寒犯腎也，麻黃附子細辛湯溫之，并以蜜制附子嚙之，慎不可輕用寒涼之劑，二證寒熱天淵。

< 清·趙謙·醫門補要·卷中·虛人勞力傷氣音啞 >

腎為聲音之根，肺乃聲音之戶，虛人勞力，損傷元氣，氣海空浮，丹田真氣不與在上肺氣相接，故喉啞難出聲。

< 清·林珮琴·類證治裁·失音 >

肺為音所自出，而腎為之根。以肺通會厭，而腎脈挾舌本也。夫金空則鳴。失音一症，亦如金實則瘖，金碎則啞，必辨其虛實，而後治法可詳。

### 24. 血證論 評釋<sup>26)</sup>

< 聲音 >

失血家初病失音，多是風火。聲音者，肺之所主，肺金清朗則聲音顯明。失血家，肺金陰虛，為火所克，肺竅不通，鼻塞聲閉。若系外感閉其氣者，宜小柴胡湯加杏仁 桔梗 荊芥 薄荷治之。若是肺中實熱，壅遏其竅，而聲音閉者，人蔘瀉肺湯治之。又有津液乾枯，肺痿葉焦，聲音嘶小者，乃失血之虛弱證，人蔘清肺湯清燥救肺湯治之，常用白蜜 川貝母 人蔘 胡桃 百合蒸服。又有癆蟲居于肺間，嚙壞肺臟，金蝕不鳴，喉中痒咳，喘熱難已，此為癆瘵難治之證，宜百部 人蔘 明雄 獺爪 白芨 百合 蠶砂 麝香 桔梗 甘草 獺肝 鱧魚骨治之。又凡癆瘵而咽喉破爛者均在不治。總宜 上方，外用珍珠 人蔘 牛黃 明雄吹之。

夫聲音者，氣所從出也。氣根于腎，故聲音之出，實由腎生，氣不歸元則咳愈甚，氣愈乏，而聲愈乾，宜以都氣丸主之，加人蔘 沈香 訶子，腎氣丸亦治之。

### 25. 最新耳鼻咽喉科學<sup>27)</sup>

< 言語障礙 >

#### 1) 構音障礙

언어음의 형성과정상의 장애를 말한다. 언어장애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장애의 결과 어음이 置換, 省略, 歪曲 및 添加로 나타난다.

#### ① 器質的 構音障礙

구음기관의 형태적 이상 즉 입술 치열 혀 구개 인두 등에 기형이나 손상에 의해 오는 구음장애.

#### ② 機能的 構音障礙

구음기관의 형태적 이상이 없이 생기는 구음장애.

#### ③ 運動障礙性 構音障礙



발어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의 이상에 의해 오는 구음장애.

④ 共鳴障礙

발음할 때 호기가 비강에 과도하게 누출되어 비강공명이 일어나는 상태를 개방성 비성, 반대로 비강으로 나올 호기가 나오지 못해 비강공명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폐쇄성 비성이라 한다.

2) 리듬障礙

말더듬 : 말하는데 있어 말의 처음 혹은 도중에 어음이 반복되거나 잡아 끌거나 혹은 막혀서 잘 나오지 않아 말의 유창성이 없어지는 상태로써 자신이 자신의 말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이를 문제시하여 괴로와한다.

3) 言語障礙

① 言語發達遲滯

일반적으로 생후 2년 6개월 정도까지 언어발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청력장애, 지능장애, 부적당한 언어환경, 자폐증 등이 그 원인이다.

② 失語症

대뇌피질의 기질적 병변 즉 뇌혈관장애, 종양, 퇴행성 질환, 외상 등으로 정상이던 언어기능을 잃어 언어의 표현 및 이해에 장애를 나타내는 것을 실어증이라 한다.

III. 總括 및 考察

말의 機能은 사람에 있어서 社會的인 交際나 각 個人의 知的生活에서도 基本的인 重要性을 갖고 있으며<sup>1)</sup> 言語障礙에는 言語를 發音하기 위한 發聲器官의 異常麻痺나 痙攣, 緊張異常等에 의해서 招來되는 構音障礙와 高位의 中樞障

碍에 의한 言語의 개입構成, 言語의 聽取 또는 發語의 中樞性 障礙로 因한 失語證으로 大別할 수 있다<sup>4)</sup>. 韓醫學에서는 言語障礙를 原因과 症狀에 따라 痰塞不語, 大驚不語, 虛勞失音, 腎虛不語 등으로 表現하고 있으며, 특히 語聲嘶啞하고 甚하면 不能發聲하는 것을 失音이라 하여 歷代 文獻에서는 瘖 또는 喑의 範疇에서 言及하고 있다<sup>14-15)</sup>.

韓醫學의 觀點에서 失音에 對하여 살펴보면 <<黃帝內經>><sup>16-17)</sup>에서는 喉嚨 會厭 舌等 發聲에 重要한 器官의 生理 機能을 言及하면서 失音의 原因에 있어서는 寒邪가 會厭에 侵犯하면 卒然無音한다 하여 感受外邪의 側面과 舌咽喉等을 循環하는 經脈 및 肝心腎의 損傷等 臟腑內傷과 經絡의 側面에서 接近하였다. 巢<sup>5)</sup>는 咽과 喉의 生理的인 機能과 外感中風冷之氣가 會厭에 侵犯하여 陽氣를 阻滯하여 氣道가 不暢하면 失音이 된다고 하였으며 趙<sup>7)</sup>는 風寒等 外邪가 肺經에 侵入하여 氣道不調하면 發生한다 하였다. 楊<sup>8)</sup>은 “心爲聲音之主, 肺爲聲音之門, 腎爲聲音之根”이라 하여 비록 發聲이 會厭, 懸雍垂等과 關聯이 있지만 실제로는 心肺腎三臟과 더욱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觀點을 提示하였다.

劉<sup>20)</sup>는 “內奪而厥, 則爲瘖俳, 此腎虛也.”라 하여 <<黃帝內經>><sup>16)</sup>의 說을 引用하면서 水實制火하면 火不克金하나 火旺水衰하여 熱乘金肺하면 神濁氣鬱하고 腎脈虛하여 氣厥不至하므로 音聲不出한다 하여 腎虛를 主된 原因으로 보고 地黃飲子를 使用하였다. 朱<sup>21)</sup>는 舌에 分布된 足少陰 足太陰 手少陰의 脈이 虛하여 痰涎이 그 脈道를 閉塞하면 不能言語한다 하여 經脈과 氣

機不利의 側面에서 失音を 言及하였다.

明代 樓<sup>18)</sup>는 失音を 中風으로 因하여 舌本만 轉運하지 못하여 言語를 成說하지 못하는 舌瘡과 勞嗽 等으로 因하여 聲嘶되어 音聲만 發하지 못하고 舌本은 正常的으로 轉運하는 喉瘡으로 區別하여 辨證論治 하였고, 徐<sup>22)</sup>는 病因을 三因으로 分類하였는데 內因으로는 內熱痰鬱 窒塞肺金을, 外因으로는 風寒을, 不內外因으로는 大聲呼叫 歌唱傷氣를 言及하면서 心 肺 腎 三臟의 機能失調에 對하여 比較的 具體的인 言及을 하였다. 張<sup>19)</sup>은 五臟이 다 失音과 關係가 있지만 特히 心 肺 腎이 爲主가 되며, 辨證에 있어서는 虛實로 나누어 實證은 風寒, 火邪, 氣逆, 痰涎으로 竅閉한 것으로 易治이며 虛證은 色欲, 憂思, 大驚 等으로 傷腎 傷心 傷膽한 것으로 難治에 屬한다 하였고 또한 飲食, 起居, 生活不慎으로 因하여 一時的으로 失音이 되는 경우에는 養息하면 治愈된다고 하였는데 그는 失音의 辨證에 있어 中風으로 因한 舌強不語와 區別하여 論治하였다.

葉等<sup>23-25)</sup>은 發聲의 根本은 腎이고 標는 肺로 그 虛實에 있어서는 久咳不已나 內奪而厥로 因한 失音은 腎虛로, 外感寒邪나 風熱痰涎 等으로 肺金燥하거나 壅遏肺竅하여 失音이 된 경우는 肺의 實證으로 보았다. 또한 “金空則鳴, 金實則無聲, 金破碎亦無聲”이라 하여 金實無聲은 感受外邪하여 阻塞肺竅하고 肺氣壅遏하는 外感的인 側面으로 實證에 屬하고 金破碎無聲은 肺燥傷津 肺腎陰虛 久病體虛 精氣耗損 等 內傷의 側面으로 虛證에 屬하며, 有邪者는 肺家實로, 無邪者는 久咳損肺로 보아 治法에 있어서도 寒邪로 因한 경우에는 散寒, 火邪는 清火, 風痰은

祛風豁痰, 君火와 相火가 上炎하여 肺氣를 傷한 경우에는 金水를 同治하는 方法을 使用하였고 갑갑기 失音한 경우에는 峻補肝腎 또는 痰火를 治療하는 方法을 使用하였다.

吳<sup>10)</sup>는 痘證과 疹證中 나타나는 하나의 症狀으로 失音を 言及하였는데 疹初에는 元蓼升麻湯을, 疹已發에는 加減涼膈散을, 疹沒後에는 兒茶散을 使用하였고 痘證에서 나타나는 失音은 熱毒이 肺竅를 壅塞한 것으로 보아 加味甘桔湯을 使用하였다. 唐<sup>26)</sup>은 失血家는 肺金陰虛하여 火克金의 結果로 肺竅不通 鼻塞聲閉하므로 失音한다 하여 대부분의 原因을 風火로 보았으며 外感으로 因한 失音에는 小柴胡湯을, 肺中實熱에는 人蓼瀉肺湯을, 津液乾枯하고 肺痿葉焦한 失血之虛弱證에는 人蓼清肺湯 清燥救肺湯을 使用하였고 癆瘵로 因한 失音은 難治라 하였다.

西洋醫學의 觀點에서 살펴보면 失音은 言語障礙中 構音障礙에 屬하는데 構音障礙란 言語의 形成科程 上의 障礙로 喉頭, 咽頭, 口蓋, 舌, 脣 및 呼吸筋 等 發語器官의 異常에 의해서 招來되는데 그 結果 語音의 置換, 省略, 歪曲 및 添加가 나타난다. 構音障礙는 크게 痲痺性 構音障礙, 痙攣 또는 筋緊張 異常에 의한 構音障礙, 運動失調性 構音障礙로 大別할 수 있다. 痲痺性 構音障礙는 構音筋 痲痺에 의한 것으로 口痲痺 症狀으로 되어 嚥下障礙와 同時에 出現되는 일이 많으며, 痲痺部位에 따라 핵상성, 핵성, 말초성 마비와 假性痲痺로 分類된다. 痙攣 또는 筋緊張 異常에 의한 構音障礙는 破傷風, tetany에서 나타나는 開口障礙와 같이 發語筋의 痙攣에 의한 경우와 Parkinson 증에서 筋緊張 異常 때문에 혀나 입술의 運動이 圓滑하게 行해지지

않고 發語가 완서하며 단조롭게 되는 경우 그  
리고 Tic, athetosis 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혀,  
口蓋筋, 咽喉頭部의 불수의 운동에 의하여 나타  
난다. 또한 運動失調性 構音障得는 多發性 硬化  
症이나 그 밖의 運動失調性 疾患에서 나타나는  
데 개개의 筋肉에는 痲痺가 없지만 協助運動障  
得에 의해서 構音障得를 나타낸다<sup>1,4,27</sup>).

最近의 文獻을 考察해 보던 方<sup>14)</sup>은 病因을  
感受外邪, 久病體虛, 情志刺激, 用聲過度로 區分  
하였고 治療에 있어서는 實證과 虛證으로 辨證  
施治 하였는데 風寒에는 疏風散寒 宣肺利竅를  
爲主로 三拗湯 杏蘇散을, 痰熱에는 淸肺泄熱 化  
痰利咽을 爲主로 淸咽寧肺湯을, 氣鬱에는 疏肝  
理氣 開鬱利肺를 爲主로 小降氣湯 柴胡淸肝湯  
加減을, 肺燥傷津에는 淸肺生津 潤燥利咽을 爲  
主로 桑杏湯 淸咽救肺湯을, 肺腎陰虛에는 滋養  
肺腎 降火利咽을 爲主로 百合固金湯 麥味地黃  
湯 등을 活用하였다. 李<sup>2-3)</sup> 등은 言語와 聲音으로  
나누어 辨證施治 하였는데 言語는 瘖不語證  
痰塞不語 亡血不語 大驚不語로 나누어 瘖不語  
證에는 祛風滌痰湯 資壽解語湯 淸神解語湯 등  
을, 痰塞不語에는 祛風滌痰湯을, 亡血不語에는  
四物湯을, 大驚不語에는 密陀僧散 茯神散을 使  
用하였고 鍼灸法으로는 合谷 神門 湧泉 太衝  
太谿 三陰交 通里 瘖門 廉泉을 活用하였다. 또  
한 聲音에 있어서는 心 肺 腎 三臟의 機能과  
咽과 喉의 生理的 機能을 言及하면서 寒氣가  
會厭에 侵入하여 發生하는 卒然無音에는 荊蘇  
湯 人蔘荊芥散 射干湯을, 邪氣가 陰分에 侵入한  
瘖瘖에는 祛風滌痰湯 潤肺丸을, 聲嘶에는 柴胡  
升麻湯 潤肺丸을, 腎虛失音에는 腎氣丸 人蔘平  
補湯 金水淸音湯을, 鍼灸法으로는 豐隆 神門 湧

泉 照海 列缺 太淵 太谿 足三里를 使用하였다.

#### IV. 結 論

失音에 對한 歷代文獻을 考察해 본 結果 다  
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失音의 原因을 內經에서는 外邪(특히 寒  
邪)와 臟腑內傷 및 經絡의 側面에서 接近하였고  
後代에는 腎虛, 肺金陰虛 등 內因을 強調하였으  
며 最近에는 感受外邪, 久病體虛, 情志刺激, 用  
聲過度를 主된 原因으로 보았다.

2. 失音의 病機로는 肺燥傷津, 肺腎陰虛하여  
火旺水衰하여 熱乘金肺하는 內傷的인 面과 感  
受外邪하여 阻塞肺竅하고 肺氣壅遏하는 外感的  
인 面이 있다.

3. 失音과 關係된 臟腑로는 心, 肺, 腎 등이  
있다.

4. 失音의 治方으로는 風寒에는 三拗湯 杏蘇  
散을, 痰熱에는 淸咽寧肺湯을, 氣鬱에는 小降氣  
湯 柴胡淸肝湯加減을, 肺燥傷津에는 桑杏湯 淸  
咽救肺湯을, 肺腎陰虛에는 百合固金湯 麥味地黃  
湯을 活用하였다.

5. 失音의 鍼治療는 合谷 神門 湧泉 太衝 太  
谿 三陰交 通里 瘖門 廉泉 豐隆 照海 列缺 足  
三里 등이 多用되었다.

## 參考文獻

1. 李文鎬 外 : 內科學,서울,金剛出版社,pp.233-239,1979.
2. 金定濟 : 診療要鑑,서울,東洋醫學研究院,pp.248-256,1983.
3. 李珩九 鄭昇杞 : 東醫肺系內科學,서울,民瑞出版社,pp.288-298,1990.
4. YOSHITOSHI, Yawara : 內科診斷學,서울,第一醫學社,pp.744-747,1992.
5. 南京中醫學院 : 諸病源候論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pp.26-27,56-57,1983.
6.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 p.155,1982.
7. 趙佶 : 聖濟總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pp.1205-1208,1987.
8. 楊士瀛 : 仁齋直指方,서울,東醫社,p.89,1984.
9. 李時珍 : 本草綱目,香港,商務印書官,P.57,1979.
10. 吳謙 : 醫宗金鑑,臺北,大中國圖書公司,內科卷五六,p.166,中華民國 73年.
11. 謝觀 : 中國醫學大辭典,臺北,臺北商務印書館, pp.3793-3794,中華民國70年.
12. 蔡炳允 : 漢方 眼耳鼻咽喉科學,서울,集文堂, pp.321-326,1986.
13. 李相龍 金庚植 : 言語障礙의 鍼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大韓韓醫學會誌 Vol.15.No.1. pp.334-341,1994.
14. 方藥中外 : 實用中醫內科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p.188-193,1986.
15.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內蒙古,內蒙古編華書店,p.418,1986.
16.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p.58,92,142,150,176,184,1985.
17.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p.38,84,151,295,333,1985.
18. 樓全善 : 醫學綱目,臺南,臺南北一出版社,卷4, p.11,1973.
19. 張介賓 : 張氏景岳全書,서울,翰成社,pp.520-521,1983.
20. 劉完素:河間六書,醫部全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卷324,pp.2242-2243,1976.
21. 朱震亨 : 丹溪心法,醫部全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卷324,p.2243,1976.
22. 徐春甫:古今醫統,醫部全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卷324,pp.2244-2245,1976.
23. 葉天士 : 臨證指南醫案,서울,翰成社,pp.146-148,1983.
24. 王新華 : 中醫歷代醫論選,江蘇,江蘇科學技術出版社,p.557,1983.
25. 周一謀 : 中醫名言大辭典,北京,中原農民出版社,pp.1566-1567,1991.
26. 唐容川 : 血證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pp.246-247,1979.
27. 白萬基 : 最新耳鼻咽喉科學,서울,一潮閣, pp.439-440,1993.